

# 남녀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생식건강증진행위에 관한 연구

강윤선<sup>1</sup> · 황혜남<sup>2</sup>

<sup>1</sup>동양대학교 간호학과 석사과정생, <sup>2</sup>동양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A Study on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s, and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s in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Kang, Yoon-Seon<sup>1</sup> · Hwang, Hyenam<sup>2</sup>

<sup>1</sup>Student,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Dongyang University, Yeongju; <sup>2</sup>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ongyang University, Yeongju, Korea

**Purpose:** Due to today's sexual openness, college students may be exposed to frequent sexual relations, which can affect their adulthood reproductive health, pregnancy, and delivery.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plore the degrees of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s, and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s in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and to identify their gender differences. **Methods:** A descriptive comparative design was used. A total of 181 college students(92 male and 89 female) were recruited. Data were collected between March 17 and April 8, 2016 using a convenience sample in a university located in Y city. **Results:** For male students, 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two variables. For female students,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s had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sexual attitudes. **Conclusion:** These findings provide essential information that health care providers can use to increase their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gender specific treatments when caring individuals.

**Key Words:** Reproductive health, Sexual behavior, Health promotion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현대 우리사회는 유교적인 영향으로 가부장적인 성문화와 자유롭고 개방적인 서구의 성문화가 혼합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서구의 자유로운 성문화는 새로운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는 대학생들에게 개방된 성도덕과 가치관을 갖게 한다. 빠른 경제성장 과 정보화, 산업화는 성문화를 개방적으로 변화시키고 이로 인해 성을 처음 경험하는 연령이 낮아지며, 혼전 성경험 비율을 증가시키고 있다[1]. 이러한 개방된 성문화는 잘못된 피임법의 사

용, 혼전 임신으로 인한 낙태와 미혼모의 발생 등의 여러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2]. 통계청의 '2015년 혼인·이혼 통계'자료에 의하면 과거 1981년의 초혼연령이 남성은 26.4세, 여성은 23세에서 2015년 남성은 32.6세, 여성은 30.0세로 평균 남녀 초혼연령은 30세를 넘겼다[3]. 이처럼 초혼연령이 높아지고 미혼기간이 길어지면서 결혼을 성관계의 시작으로 보며 혼전순결을 강조하던 과거의 사회문화적인 의식이 바뀌고 있다[2]. 이러한 변화된 성문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학생은 Erikson의 발달단계에서 볼 때 청년기에서 성인기로 옮겨가는 과도기적 시기인 청년후기에 해당하며, 신체적인 성적 변화뿐만 아니라 성정체감이 형성되는

**주요어:** 생식건강, 성행위, 건강증진

\* 본 논문은 제1저자 강윤선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하여 작성한 것임.

\* This article is a revision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from Dongyang University.

Address reprint requests to: Hwang, Hyenam

Department of Nursing, Dongyang University, 145 Dongyangdaero, Punggi, Youngju, Gyeongbuk, 36040, Korea

Tel: +82-54-630-1722 Fax: +82-54-630-1179 E-mail: hnhwang@dyu.ac.kr

Received: 16 September 2016 Revised: 24 November 2016 Accepted: 24 November 2016

시기이다[4].

대학생 시기는 성충동을 많이 느끼고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강렬한 때이며,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대학입시 위주의 구조에서 벗어나 좀 더 자유로운 이성교제와 개방된 성문화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져 성관련 문제들로 인한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기도 한다[5]. 생식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성행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이며, 그로 인한 성병이나 원치 않은 임신 등의 증가로 인해 생식건강의 고위험집단으로 대학생을 간주하게 만들었다[6]. 따라서 성인기 생식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생들의 생식건강증진행위 정도의 파악이 요구되며 생식건강증진을 위한 생식건강증진행위와 관련된 요인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성태도는 일반적으로 성에 대한 이념, 지각과 성향으로 성행위에 대한 개인의 견해를 의미하며[7], 한번 형성된 성태도는 쉽게 변하지 않으므로 대학생 시기에 형성된 성태도는 개인의 성인기와 우리사회의 성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며, 성태도가 개방적인 경우에 성경험이 더 많았다[8, 9]. 성지식은 성과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과 생리 현상 등 건강한 성인으로서 성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이며, 성에 대한 개인의 가치관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역할 등이 포함된다[10]. 과학적 근거에 의해 성지식을 습득한 경우라면 행위에 대하여 더욱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생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성지식을 갖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5]. 대학생은 생애주기 과정에서 가장 건강한 시기라고 할 수 있으며 이때의 건강증진행위는 성인기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11], 특히 결혼 이후 임신과 출산으로 직결되는 생식건강과 관련한 생식건강증진행위는 중요한 문제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생식건강(Reproductive health)을 단지 생식기의 질병이나 불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상태로 안전한 성생활을 할 수 있으며, 번식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12].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시절에 많은 학생들이 성행위를 시작하고 있어 안전하지 않은 성생활로 원치 않는 임신이나 성병의 위험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3]. 따라서 남녀 대학생의 올바른 생식건강증진행위를 위한 성에 대한 태도와 지식간의 관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성지식, 성태도, 성경험과 성행동의 실태와 이들 변수 간의 관계, 그리고 영향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7, 9, 14], 생식건강증진행위 도구개발을 위한 연구[13]를 제외하고는 대학생의 생식건강증진행위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15, 16]. 성태도와 성지식을 변수로 한 생식건강증진행위와 관련한 연구가 있으나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16], 성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존재하므로[1, 8, 15,

17, 18] 남녀의 차이를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남녀 대학생의 생식지식과 생식건강증진행위와 관계 연구는 있으나[15], 성지식, 성태도와 생식건강증진행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생식건강증진행위 정도와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남녀의 차이를 알아보고, 남녀 대학생의 올바른 생식건강증진행위를 돕기 위한 중재프로그램의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남녀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생식건강증진행위 정도를 알아보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여 대학생의 생식건강증진행위 중재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남녀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의 차이를 파악한다.
- 2) 남녀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남녀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 성태도 및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차이를 파악한다.
- 4) 남녀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생식건강증진행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정도를 확인하고, 이들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서술적 비교 조사연구이다.

### 2.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Y시 소재 일개 대학교의 보건실을 방문한 남녀 대학생을 편의 추출하였다. Cohen[19]의 검정력 분석방법 G\*Power 3.1을 활용하여 차이검증을 수행하기 위해서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50, 검정력 .90일 때 필요한 최소 대상자 수는 남녀 각각 86명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 92명, 여학생 89명으로 총 181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 3. 연구 도구

####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기본인적사항과 성관련 특성(이성교제 경험, 성경험 유무, 성관련 지식획득 경로, 성교육 유무와 부모님의 성태

도)을 포함하고 있다.

## 2) 성지식

성지식은 개인이 알아야 할 성과 관련한 광범위한 내용으로 직·간접적으로 습득하여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21]. 본 연구에서는 전경숙[21]이 개발한 성지식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정답은 1점, 오답 및 모른다는 0점으로 처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에 대한 지식이 높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성에 대한 지식이 낮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는 .85이었고 신경림 등[22]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는 .89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남녀 대학생의 신뢰도는 남녀 모두에게서 Cronbach's  $\alpha$ 는 .81이었다.

## 3) 성태도

성태도는 개인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기의 태도나 관점 중 성적 측면과 관련된 성행위나 성심리에 대해 개인의 체계화되고 일관성 있는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다[5]. 본 연구에서는 호선민[5]이 선행연구를 토대로 개발한 성태도 측정도구를 우근희[6]가 일부 수정한 35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하부요인으로 성에 대한 생각(쾌락 유희적 성), 혼전순결 허용성, 성 허용성, 동성에 허용성, 낙태 허용성 등이 있었으며, 각 문항의 응답 방식은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성태도의 점수는 낮을수록 보수적이고, 높을수록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김상희와 윤우철[20]의 연구에서 성태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는 .92이었고, 본 연구에서 남학생의 Cronbach's  $\alpha$ 는 .85, 여학생의 Cronbach's  $\alpha$ 는 .87로 나타났다.

## 4) 생식건강증진행위

세계보건기구[12]는 생식건강을 사람들이 책임감 있고 만족하며 안전한 성생활을 할 수 있으며 언제, 얼마나 자주 이러한 것을 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자유와 번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김모성과 어용숙[15]은 생식건강증진행위를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향유하며 자녀출산의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갖는 생식과 관련된 건강 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을 포함한 상태인 총체적 건강행위'라고 정의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호윤 등 [13]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생식건강증진행위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남학생은 16문항으로 하위요인에 안전 성행위, 성행위 책임감, 생식기 건강관리, 성병예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학생은 18문항으로 하위요인에 남학생 문항에 생식기 위생관리 문항이 추가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생식건

강증진행위를 더 잘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남학생 도구가 .89, 여학생 도구는 .88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남학생 도구가 Cronbach's  $\alpha$ 는 .86, 여학생 도구는 Cronbach's  $\alpha$ 는 .92이었다.

## 4.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Y시의 D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승인(1041495-201601-HR-01-01)을 받은 후 자료수집은 2016년 3월부터 4월까지 이루어졌다.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의 목적과 대상자의 윤리보호에 대한 설명을 하고 대학 내 보건실을 방문한 학생들 중 연구를 허락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설문에 대한 응답은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하였다.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여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학생들에게 연구자가 직접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하게 하였다. 설문지는 총 200부를 배부하여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한 설문지 19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81부를 분석하였다.

## 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 분석하였다.

- 1) 남녀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Chi-square test, T-test를 사용하였다.
- 2) 남녀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생식건강증진행위 정도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실수, 평균, 표준편차, T-test를 사용하였다.
- 3) 남녀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 성태도 및 생식건강증진행위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Independent sample T-test, One-way ANOVA와 사후검정으로 Scheffe's test를 사용하였다.
- 4) 남녀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생식건강증진행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 연구 결과

### 1. 남녀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차이

본 연구의 대상자는 남학생 92명과 여학생 89명이었고, 남학생의 평균연령은 21.5세, 여학생 19.6세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평균연령은 유의하게 높았다( $t=7.05, p<.001$ ). 남학생은 3학년과 4학년이 각각 30명(16.6%)으로 가장 많았고, 여학생은 1학년이 37명(20.4%)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년별 남녀 차이를 보였다( $X^2=19.03$ ,

$p<.001$ ). 거주형태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가 남학생이 52명 (28.7%), 여학생이 71명(39.2%)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녀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X^2=15.75, p<.001$ ). 대상자의 월 평균 용돈과 종교의 남녀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성경험이 있는 경우는 남학생 46명(50.0%), 여학생 15명(16.9%)으로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X^2=22.22, p<.001$ ). 부모님의 성태도는 보통이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개방적인 경우는 남학생 16명(17.4%), 폐쇄적인 경우는 여학생 37명(41.6%)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X^2=20.70, p<.001$ ). 성관련 지식획득 경로는 성교육프로그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성교제 경험은 현재 없음이 남녀 모두에게서 가장 높았고 성교육은 대부분의 학생이 받은 적이 있었으며, 이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Table 1).

**2. 남녀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차이**

성지식 정도의 평균점수는 남학생 0.63점, 여학생 0.69점으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성지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2.41, p<.017$ ). 성태도의 평균점수는 남학생 3.05점, 여학생 2.84점으로 남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t=3.62, p<.001$ ). 생식건강증진행위 평균점수는 남학생 3.40점, 여학생 3.41점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Table 2).

**3. 남녀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 성태도 및 생식건강증진행위 정도**

남녀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 정도의 차이는 남학생의 경우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학년에 따른 성지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3.99, p=.010$ ). 3학년 ( $M=.80$ )은 1학년( $M=.66$ )에 비해 성지식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남녀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태도의 차이는 남학생의

**Table 1. Differences in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N=181)

Variable	Category	Male (n=92)		Female (n=89)		$X^2/t (p)$
		n (%)	n (%)	n (%)	n (%)	
Age (yr) M (SD)		21.5 (2.15)	19.6 (1.45)			7.05 (<.001)
Grade	1	14 (7.7)	37 (20.4)			19.03 (<.001)
	2	18 (9.9)	20 (11.0)			
	3	30 (16.6)	17 (9.4)			
	4	30 (16.6)	15 (8.3)			
Religion	Protestantism	18 (9.9)	20 (11.0)			0.45 (.930)
	Catholicism	9 (5.0)	9 (5.0)			
	Buddhism	8 (4.4)	9 (5.0)			
	None	57 (31.5)	51 (28.2)			
Type of residence	Home with patents	5 (2.8)	7 (3.9)			15.75 (<.001)
	Dormitory	52 (28.7)	71 (39.2)			
	Boarding with cooking	35 (19.3)	1 (6.1)			
Monthly money for personal use ( $\times 10,000$ won)	<10	15 (16.3)	13 (14.6)			3.66 (.454)
	10~20	22 (23.9)	23 (25.8)			
	20~30	28 (30.4)	26 (29.2)			
	30~40	17 (18.5)	23 (25.8)			
	>40	10 (10.9)	4 (4.5)			
Experience of dating	Yes	24 (26.1)	34 (38.2)			3.12 (.210)
	Yes, but not currently	48 (52.2)	40 (44.9)			
	No	20 (21.7)	15 (16.9)			
Sexual experience	Yes	46 (50.0)	15 (16.9)			22.22 (<.001)
	No	46 (50.0)	74 (83.1)			
Information source	Family	2 (2.2)	1 (1.1)			5.52 (.132)
	Friends	28 (30.4)	20 (22.5)			
	Education program	42 (45.7)	56 (62.9)			
	Media	20 (21.7)	12 (13.5)			
Sexual education experience	Yes	91 (98.9)	88 (98.9)			0.01 (.981)
	No	1 (1.1)	1 (1.1)			
Parents' attitude on sex	Open minded	16 (17.4)	4 (4.5)			20.70 (<.001)
	Neutral	63 (68.5)	48 (53.9)			
	Conservative	13 (14.1)	37 (41.6)			

**Table 2.** Differences in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s, and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s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N=181)

Variable	Male (n=92)		Female (n=89)		Possible range	t (p)
	M±SD	Min-Max	M±SD	Min-Max		
Sexual knowledge	0.63±.18	0.18-1.00	0.69±.16	0.27-1.00	0-1	-2.41 (.017)
Sexual attitudes	3.05±.40	2.06-4.09	2.84±.40	1.83-3.60	1-5	3.62 (<.001)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s	3.40±.35	2.63-4.00	3.41±.41	2.33-4.00	1-4	-0.18 (.858)

경우 부모님의 성태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F=8.92, p<.001). 부모님의 성태도가 개방적(M=3.40)인 경우가 보통(M=2.99)과 폐쇄적(M=2.92)인 경우보다 남학생의 성태도 점수는 높게 나와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는 종교에 따라서 성태도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6.32, p<.001). 개신교(M=2.53)가 불교(M=2.99)와 무교(M=2.91)에 비해 성태도의 점수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식건강증진행위 정도의 차이는 남학생의 경우에 성관련 지식획득 경로에 따라 생식건강증진행위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83, p=.012). 대중매체(M=3.22)보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성교육프로그램(M=3.50)으로 성지식을 획득한 경우에 생식건강증진행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는 학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4.89, p=.003). 사후검정에서 1학년(M=3.58)이 4학년(M=3.16)에 비해 생식건강증진행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성경험이 있는 경우(M=3.16)에 비해 성경험이 없는 경우(M=3.45)가 생식건강증진행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t=-2.72, p=.008)(Table 3).

**4. 남녀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상관관계**

남학생의 경우에는 성지식, 성태도, 생식건강증진행위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생식건강증진행위와 성태도(r=-.22, p=.042)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생식건강증진행위와 성지식과는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생식건강증진행위 정도와 그 관계를 파악하고, 남녀의 차이를 비교하여 남녀 대학생의 올바른 생식건강증진행위 수행을 위한 중재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남학생 21.5세, 여학생 19.6세이

었으며, 성경험이 있는 경우는 남학생 50%, 여학생 16.9%로 남녀의 차이가 있었다. 전국 대학생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신경림 등[23]의 연구와 이규영과 심인옥[17]의 연구, 김묘성과 어용숙[15]의 연구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의 성태도는 남학생의 부모님이 좀 더 개방적이고 여학생의 부모님이 좀 더 폐쇄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강효운[2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가부장제도의 영향으로 성허용성에 대해 남성보다 여성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성의 이중기준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25]. 본 연구에서 성관련 지식 획득경로는 남녀 대학생 모두에서 학교에서의 성교육프로그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규영과 심인옥[17]의 연구에서 남학생은 친구나 선배로부터, 여학생은 학교교육이 가장 많았고 이현숙 등[14]의 고등학생 대상 연구에서 남학생은 인터넷과 친구나 선배, 여학생은 학교교육과 친구나 선배로 나타나 여학생의 경우는 본 연구결과와 일부는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가 남녀 대학생 각각 98.9%로 나타나 하주영과 김건희[26]의 여학생 대상 연구의 97.7%와 유사했다. 이러한 결과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받고 있는 영향으로 보이며 성지식 획득 경로가 학교에서의 성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답한 것과 맥락을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성경험과 부모의 성태도에 따라 남녀의 차이가 있고 대부분 남녀 대학생이 성교육을 받았고 성교육을 통해 성지식을 얻은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성교육의 중요성과 남녀 성별을 고려한 성교육의 필요성이 시사된다. 학교 성교육은 금욕이나 순결에 교육의 초점을 맞추기보다 건강한 성을 관리하는 방법과 상황에 대처하는 생활기술을 교육한다면 더 효과적일 수 있으며[14], 대학생의 생식건강을 위한 효과적 성교육에 관한 추후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의 성지식 정도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같은 도구를 사용한 강효운[24]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유사하게 성지식 수준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10, 18, 22]. 성별에 따라 성지식의 차이가 나타난 것은 여학생은 임신이나 피임 등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학생 스스로 성

**Table 3.** Differences in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s, and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s by Characteristics between Male and Female (N=181)

Variable	Category	Male (n=92)						Female (n=89)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s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s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s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s	
		M±SD	t/F (p) Scheffe	M±SD	t/F (p) Scheffe	M±SD	t/F (p) Scheffe	M±SD	t/F (p) Scheffe	M±SD	t/F (p) Scheffe	M±SD	t/F (p) Scheffe
Grade	1 <sup>a</sup>	.60±.20	0.41 (745)	3.01±.42	0.10 (961)	3.48±.32	0.47 (708)	.66±.15	3.99 (010)	2.72±.45	1.81 (152)	3.58±.36	4.89 (003)
	2 <sup>b</sup>	.60±.18		3.06±.49		3.40±.25		.66±.15		2.88±.36		3.34±.34	
	3 <sup>c</sup>	.65±.18		3.04±.35		3.49±.39		.80±.10	a < c	2.93±.34		3.33±.46	d < a
	4 <sup>d</sup>	.64±.18		3.08±.40		3.35±.38		.66±.19		2.93±.34		3.16±.41	
Religion	Protestantism <sup>a</sup>	.62±.19	0.06 (982)	2.91±.49	1.10 (356)	3.39±.28	1.07 (365)	.65±.15	0.44 (722)	2.53±.42	6.32 (<.001)	3.47±.43	0.25 (859)
	Catholicism <sup>b</sup>	.65±.21		3.14±.36		3.33±.45		.69±.16		2.94±.35	a < c, d	3.33±.47	
	Buddhism <sup>c</sup>	.61±.18		3.15±.31		3.21±.41		.70±.18		2.99±.34		3.40±.41	
	None <sup>d</sup>	.63±.18		3.07±.39		3.43±.34		.70±.16		2.91±.35		3.40±.40	
Type of residence	Home with parents	.71±.10	0.52 (594)	3.03±.32	0.09 (914)	3.68±.20	2.86 (063)	.64±.20	0.45 (641)	2.65±.32	1.14 (323)	3.52±.39	0.76 (469)
	Dormitory Boarding with cooking	.63±.18		3.04±.40		3.42±.37		.70±.15		2.84±.40		3.41±.40	
Monthly money for personal use (×10,000won)	<10	.65±.19	1.58 (739)	3.18±.40	0.50 (739)	3.32±.28	1.58 (187)	.69±.19	1.23 (304)	2.60±.50	1.65 (171)	3.40±.48	0.35 (842)
	10~20	.55±.18		3.04±.41		3.48±.30		.69±.14		2.88±.38		3.35±.40	
	20~30	.67±.17		3.04±.38		3.36±.38		.71±.14		2.87±.33		3.48±.42	
	30~40 >40	.63±.18		3.02±.44		3.50±.37		.70±.17		2.84±.41		3.38±.41	
Experience of dating	Yes	.63±.16	0.01 (995)	2.97±.42		3.24±.37		.52±.19		3.08±.32		3.47±.26	
	Yes, but not currently	.63±.20		3.16±.45	1.61 (205)	3.48±.38	1.24 (294)	.70±.17	0.58 (565)	2.92±.35	1.41 (251)	3.30±.42	1.82 (169)
Sexual experience	Yes	.61±.18	-1.04 (299)	3.04±.36	1.43 (155)	3.39±.34	-0.15 (882)	.67±.15	1.02 (308)	3.01±.43	1.90 (061)	3.49±.41	-2.72 (008)
	No	.65±.19		2.99±.38		3.40±.35		.73±.14		2.82±.40		3.43±.34	
Information source	Family <sup>a</sup>	.68±.06	1.96 (126)	3.53±.14	1.12 (347)	3.65±.13	3.83 (012)	.91±.00	1.79 (156)	2.40±.00	1.51 (217)	3.00±.00	1.74 (165)
	Friends <sup>b</sup>	.57±.19		3.04±.40		3.35±.34		.63±.14		2.86±.41		3.47±.37	
	Education program <sup>c</sup>	.67±.15		3.02±.37		3.50±.35		.70±.16		2.80±.41		3.44±.43	
	Media <sup>d</sup>	.60±.22		3.09±.47		3.22±.27		.70±.17		3.02±.25		3.20±.32	
Sexual education experience	Yes	.63±.40	0.96 (338)	3.05±.40	-0.23 (821)	3.40±.35	0.79 (432)	.69±.16	0.92 (358)	2.84±.40	0.09 (927)	3.41±.41	1.28 (203)
	No	.45±.00		3.14±.00		3.13±.00		.55±.00		2.80±.00		2.87±.00	
Parents' attitude on sex	Open minded <sup>a</sup>	.70±.17	0.18 (234)	3.40±.43	8.92 (<.001)	3.45±.35	0.76 (470)	.68±.12	0.42 (658)	2.99±.23	0.34 (714)	3.40±.31	2.58 (082)
	Neutral <sup>b</sup>	.61±.18		2.99±.35		3.37±.33		.68±.16		2.81±.41		3.50±.37	
	Conservative <sup>c</sup>	.61±.32		2.92±.40	b, c < a	3.48±.41		.71±.16		2.84±.40		3.30±.45	

**Table 4.** Correlation between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s, and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s (N=181)

Variable	Male (n=92)			Female (n=89)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s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s
Sexual knowledge	1			1		
Sexual attitude	.14	1		.02	1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s	.15	-.02	1	-.01	-.22*	1

\* $p < .05$ .

지식을 습득한 결과로 파악된다[10]. 본 연구 대상자의 성태도 정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에 대해 더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도구를 사용한 김은만 등[8]의 연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태도가 개방적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일치했다[7, 9, 18].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적요구 권리나 자유로운 성행위를 중요한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남학생이 개방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하였다[17]. 본 연구에서의 생식건강증진행위 정도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호윤[13]의 연구에서도 남녀의 평균이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남학생의 성지식 정도는 여학생보다 낮고, 성태도는 여학생보다 개방적이므로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더 적극적인 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생식건강증진행위 정도는 남녀 대학생의 점수는 유사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도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성경험이 많고, 남녀의 생식기 구조가 다르므로 남학생은 콘돔 사용 등 안전 성행위와 피임 등 성행위 책임감 교육, 여학생은 임신과 출산으로 연결되는 생식건강을 위하여 생식기 위생과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 등 남녀의 차이를 둔 성교육이 요구된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의 남학생의 경우 부모님의 성태도가 개방적인 경우가 보통 또는 폐쇄적인 경우보다 개방적인 성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강효운[2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여학생의 경우는 개신교가 불교 또는 무교 집단보다 보수적인 성태도를 보였으며, 이는 하주영과 김건희[2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여학생의 성지식 수준이 1학년보다 3학년이 통계적으로 높았다. 홍정민과 황은희[27]의 연구에서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성지식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이성교제 경험, 성교육 경험 등의 영향으로 해석되며, 추후에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생식건강증진행위는 남학생의 경우 대중매체보다 성교육프로그램으로 성관련 지식을 얻은 경우가 생식건강증진행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중매체보다 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성지식의 전달이 올바르고 정확하였음을 보여

준다. 여학생의 경우는 1학년이 4학년보다 생식건강증진행위 점수가 높았고, 성경험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생식건강증진행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경험이 있는 경우는 실제 자신의 경험이 반영되었고, 성경험이 없는 경우는 앞으로 행위에 대한 생각을 나타낸 것이므로 성경험이 있는 경우에서 실제 생식건강증진행위 수준은 더 낮게 나타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생식건강증진행위 수준이 높은 경우가 남학생은 대중매체보다 성교육프로그램으로 성관련 지식을 얻은 경우이고, 여학생은 1학년과 성경험이 없는 경우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고등학교와 대학신입생 시기에 올바른 생식건강증진행위를 위한 성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성경험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생식건강증진행위 관련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여학생은 생식건강증진행위와 성태도와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생식행위와 성지식과의 상관관계는 없었으며, 남학생의 경우 생식건강증진행위와 성지식, 성태도 간의 상관관계가 없었다.

김혜영과 이은주[16]의 여대생 대상 연구에서 성지식과 생식건강증진행위와는 상관관계가 없었고, 성태도는 성경험이 없는 집단에서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고, 성지식과 성태도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양아기[18]와 홍정민과 황은희[27]의 연구에서는 성태도와 성지식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본 연구와 일치했다. 김묘성과 어용숙[15]의 연구에서는 생식건강 지식과 생식건강증진행위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허명행 등[28]의 연구에서 피임지식과 태도는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아 피임에 대한 지식은 피임을 하고자 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성지식이 높을수록 성태도가 개방적이라고 지적한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9, 17]. 따라서 본 연구에서 생식건강증진행위와 성지식, 성태도의 상관관계를 일괄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울 지라도 남학생과 여학생의 생식건강은 발생학적인 구조와 기능부터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서로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따라 남녀 대학생의 생식건강증진과 관련된 추후 연구 및 생식건강증진을 위한 남녀 개별적인 증재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모두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태도가 지식보다는 행동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13], 성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성태도는 성지식보다 자신의 가치관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될 수 있어 성지식, 성태도 및 생식건강증진행위에 대한 후속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비교 조사연구로 Y시 소재 일개 대학교 남녀 대학생을 편의 추출하여 남학생 92명, 여학생 89명으로 총 18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녀 대학생 모두에게 적용하기는 어려울지라도 특히 여학생의 생식건강증진행위에는 성지식보다 성태도가 더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남녀 대학생의 생식건강의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과 교육에 활용할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증재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청년기인 대학생의 생식건강과 관련한 문제해결의 간호중재에 필요한 교육과정개발 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일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연구 대상을 확대시켜 남녀 대학생의 생식건강증진행위 정도를 확인하는 반복 연구와 남녀 대학생의 생식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며, 대학생의 생식건강과 관련된 상담과 교육을 할 경우 성별의 차이를 고려한 생식건강증진행위 증재프로그램을 개발을 제안한다.

## REFERENCES

- Hwang SW, Chung CW. Contraception behavior and related factors in unmarried female and male.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11;17(1):77-87. <http://dx.doi.org/10.4069/kjwhn.2011.17.1.77>
- Shin KR, Park HJ, Bae KE, Cha CY. Sexual behavior, health risk behaviors related to reproductive health, and sexual experiences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J Korean Acad Adult Nurs*. 2010;22(6):624-633.
- Statistics Korea. 2015 Marriages and divorces statistics[Internet]. Seoul: statistics Korea; 2015[cited 2016 April 7].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
- Erikson EH. *Identity, youth, and crisis*. 1st ed. NY: Norton; 1968.p.336.
- Ho SM.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of the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Seoul: Hanyang University; 2009. p.1-69.
- Finer LB, Henshaw SK. Disparities in rates of unintended pregnancy in the United States, 1994 and 2001. *Perspect Sex Reprod Health*. 2006;38(2):90-96.
- Kim MO. Factors that influencing sexual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J Korea Acad-Industr Coop Soc*. 2013;14(8):3876-3886. <http://dx.doi.org/10.5762/KAIS.2013.14.8.3876>
- Kim EM, Yu SJ, Song MR. Correlation between history of exposure to obscene material, sexual attitudes and intercourse experience among university students. *J Korean Acad Fundam Nurs*. 2013;20(1):18-26. <http://dx.doi.org/10.7739/jkafn.2013.20.1.18>
- Woo GH.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Gongju: Gongju University; 2011.p.1-43.
- Shin MA, Choi JH. Unmarried college students' knowledge of sex and cognition of prenatal education. *Korean J Hum Ecol*. 2010;19(4):613-624. <http://dx.doi.org/10.5934/KJHE.2010.19.4.613>
- Hwang HG, Shin JK, Choi CH, Yoo WK.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the Korean college students and factors on its influences. *Korean J Orient Prev Med*. 2007;11(2):141-157.
- World Health Organization. *Reproductive health*. Retrieved December 1, 2013, from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http://www.who.int/topics/reproductive\\_health/en/](http://www.who.int/topics/reproductive_health/en/)
- Jo HY, Kim YH, Son HM. Development of a scale to measure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 of undergraduates. *Korean J Health Edu Promot*. 2014;31(5):29-43. <http://dx.doi.org/10.14367/kjhep.2014.31.5.29>
- Lee HS, Jeong BH, Lee YH, Seong WS, Ha JO, Lee GY, et al. A study on the level of sex education,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and sexual allowance among high school students. *J Educ Cult*. 2015;21(3):231-252.
- Kim MS, Eo YS. A study on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 among male and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of one university. *J East-West Nurs Res*. 2015;21(2):140-147. <http://dx.doi.org/10.14370/jewnr.2015.21.2.140>
- Kim HY, Lee EJ.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and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s of Female Students in College.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2015 Summer Nursing Conference ; 2015 June 26; Chungang Universit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Conference: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2015. p.198-198.*
- Lee GY, Sim IO. Factors affecting sexual experiences of freshmen in college. *Health Soc Sci*. 2013;34:159-182.
- Yang YK. A study on knowledge, attitudes, and need for sex education in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12; 18(3):159-169. <http://dx.doi.org/10.4069/kjwhn.2012.18.3.159>
- Cohen J.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end ed.)* Hillsdale NJ:Lawrence Earlbaum Associates; 1988.
- Kim SH, Yoon YC. Sexual Consciousness and Attitude of Male University Students. *J Korean Public Health Nurs*. 2012;26(2): 248-257. <http://dx.doi.org/10.5932/JKPHN.2012.26.2.248>
- Jeon GS, Lee HY, Rhee SJ. Sexual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s

- of Korea college students and effects of sexual education on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s. *Korean J Health Edu Promot.* 2004;21(1):45-68.
22. Shin KR, Park HJ, Hong CM. Effects of an educational program about reproductive health promotion on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s of university students from Korea. *J Korean Acad Adult Nurs.* 2010b;22(4):448-456.
  23. Shin KR, Park HJ, Kang MJ, Park IS, Bae KE, Suh SR, et al. Survey on actuation sexual attitude among college students [Internet]. Seoul: Korea Health Promotion Foundation; 2011. Available from: [https://research.khealth.or.kr/hpResearch/rsrpfTma.dia?method=detailView&RSR\\_IDX=808&mnid=02120200000&searchCount=0&searchLine=&page=17&outLine=10](https://research.khealth.or.kr/hpResearch/rsrpfTma.dia?method=detailView&RSR_IDX=808&mnid=02120200000&searchCount=0&searchLine=&page=17&outLine=10)
  24. Kang HY.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exual knowledge, attitudes, behaviors and variables forecasting sexual intercourse of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Seoul: Sungkonghoe University; 2007. p.1-170.
  25. Kim YG.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sexual double standard, sexual subjectivity, sexual meaning on their sexual behaviors. *Forum Youth Culture.* 2011;27:8-37.
  26. Ha JY, Kim KH. Sexual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 in female college students.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09;10(1):17-32.
  27. Hong CM, Hwang EH. Relationships among sexual attitudes, sexual knowledge and social support of middle school students. *J Korea Cont Assoc.* 2013;13(8):240-249. <http://dx.doi.org/10.5392/JKCA.2013.13.08.240>
  28. Hur MH, Ahn HY, Kwak EA, Kim KM, Park JY, Lee JI. A study on sexual behavior, and correlation between knowledge of contraception and attitude of contracep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J Korean Acad Nurs.* 2007;37(3):267-275.